

지역 소식통

부안읍, 내년도 상반기

주민자치교실 수강생 모집

부안읍행정복지센터는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주민자치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주민자치교실은 1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수강생 총 3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부안 읍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프로그램 수강을 원하는 주민은 부안 문화의전당(☎581-1320)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주민자치교실 프로그램은 부안읍행정복지센터 3층(한문, 문예창작, 성인문해, 시낭송, 생활컴퓨터, Open yoga, 스마트폰 활용)과 부안 문화의전당(문인화, 가요교실, 생활체조, 사물놀이, 색소폰 연주, 버블이 고교장구) 두 곳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김남철 부안읍장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 태인축구장 개장기념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성료

정읍시에서 열린 2022년 태인축구장 개장기념 전국유소년 축구대회(2차)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정읍시축구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축구클럽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태인성황축구장 개장을 기념하고, 국내 축구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6인제(초 1·2·3학년)와 8인제(초 4·5·6학년)로 나눠 리그전 예선과 토너먼트 방식 결선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유소년축구클럽 53개 팀 6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냈다.

열린 경쟁 끝에 광주에플라린 FC(1학년), JK 풋볼클럽(2학년), 이리뽕볼클럽(3학년), UK주니어(3학년), 청주 프로비티(4학년), 구상전FC(4학년), FC포텐셜(5학년), 경기광명FC(6학년)가 학년별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내장산, '한국 관광 100선' 선정

2013년 첫 선정 이후 5년째 대표 관광지로 거듭

정읍시의 대표 관광지인 내장산국립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공동 주관하는 2023년~2024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 관광 100선에 5년째 선정된 내장산은 지난 2013년 처음 선정된 후 2017년부터 지금까지 4년 연속 선정되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 굳건한 기상을 자랑하고 있다.

산 안에 숨겨진 것들이 무궁무진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내장산은 1971년 11월 17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가을철 단풍이 아름다워 예로부터 조선 8경의 하나로 이름났으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남원 지리산 영암 월출산 장흥 천관산 부안 능가산(변산)과 함께 호남 5대 명산으로 손꼽힌다.

내장산은 봄 신록, 여름 녹음, 가을



2023년~2024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만산종영, 겨울 설경 등 사계절 모두가 아름다운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봄에는 초록빛 가득한 신록으로, 여름은 생명력 가득 탐은 짙은 푸름으로, 가을은 붉은빛 단풍으로, 그리고

겨울은 눈부신 설경으로 사람을 부른다.

특히 내장산의 대표 명소인 단풍터널은 일주문에서 내장사까지 108주의 단풍나무로 우거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정읍=김대환기자

## 부안군의회 예결위, 내년도 본예산 의결

오는 15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서 최종 확정 예정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래)는 지난 12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다.

오는 15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23년도 부안군 예산안 규모는 7,455억원으로 전년도 7,100억원보다

355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예결특위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2023년도 현안 재정수요 반영, 코로나19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과다한 선심성·행상성 경비 편성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했다.

그 결과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계수

조정을 거쳐 세출예산 새마을회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메신저 행정전화 연동시스템 구축 등 48개 사업에 대해 84억원을 삭감·수정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박병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중한 재원이 적기적시에 예산이 투입되어 군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부안 사회적 농장 '이레농원' 오몽드 퍼머컬처 캠프 개최

부안군 사회적 농장 이레농원에서는 12월 9일부터 11일 2박 3일간 '오몽드 퍼머컬처 캠프'를 열었다.

사회적 농업은 취약계층과 함께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알리는 사업으로 부안군에서는 2022년 이레농원(대표: 박연미)이 사회적

농장으로 선정, 4월부터 12월까지 청년, 아동 장애인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었다. 특히 청년 및 귀농 귀촌인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있어 생태적 지립을 목적으로 캠프형 체험형, 교육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삶을 디자인하고 발을 디자인하는 '오몽드 퍼머컬처 캠프'



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자연의 원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디자인 하기, 퍼머컬처 공유농장 만들기 공동체 식사, 허브를 이용한 마녀 연고 만들기 등 반농반\*의 삶을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레농원의 사회적 농업의 목표는 지역의 자원과 사람이 생태적 순환 구조를 만들어 새로운 공동체의

모델을 제시하며 누구나 환영받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을 해나가는 것이다.

'오몽드' monde 불어로 세상'은 지난 4월에 이루어진 1차 퍼머컬처 캠프 참가자가 제안한 컨셉으로 5가지 테마로 맛, 놀이, 치유, 향, 시각의 세계관을 담은 텃밭 디자인으로 실제 밭을 만드는 과정은 이번 2차 캠프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강원도 영월에서 사회적 농업과 여행학교를 운영하는 허바\*팀과 포천과 제주도에서 작은 밭 학교를 운영하는 대표 등 사회적 농업 관계자들이 참여, 지역을 넘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류하는 시간이 되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국 최고 체육시설인 고창스포츠타운에서 동계 전지훈련이 시작됐다.

## 스포츠마케팅 '활발' · 상권 '방긋'

고창스포츠타운서 동계 전지훈련 시작

전국 최고 체육시설인 고창스포츠타운에서 동계 전지훈련이 시작됐다.

지난 12일부터 대한배드민턴협회 주관으로 배드민턴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 70명이 군립체육관에서 18일간의 일정으로 동계 합숙 훈련을 시작했다. 대한축구협회의 C급 지도자 강습회(54명)도 생활축구경기장에서 21일까지 합숙 훈련으로 진행된다.

또 내년 1월부터 태권도 선수단 4팀(40명, 10일간)과 유소년 야구 선수단 4팀(80명, 20일간), 고등학교 야구부 1팀(28명, 21일간)이 고창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단위 주요 대회도 잇따라 열린다. 15일부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배드민턴 전라북도 1차 선발전'과 '제40회 전라북도 종합 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열린다.

내년 2월에는 1000여명이 참가하는 '제2회 고창풍원장어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를 시작으로 '대학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대회', '전국 아마추어 골

프선수권대회' 등 각종 전국 대회가 예정돼 있다.

고창스포츠타운은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타운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축구장 3면, 야구장 1면, 유소년 야구장 1면, 실내야구연습장,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다목적구장 등으로 조성돼 있다.

뿐만 아니라 고창스포츠타운은 군립체육관, 공설운동장, 전지훈련트레이닝센터가 근접해있으며, 주변 숙소와 식당과도 접근성이 높아 전지훈련 선수단 등 체육인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시설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3년 세계유산 도시 고창 방문의 해에는 다양한 체육 행사를 통해 수많은 체육인들을 고창으로 유치하도록 하겠다"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체육 인프라를 활용해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여 지역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겨울철 동파방지 대책 추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결·동파 대비 단계별 상황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철저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겨울에는 찬 대륙성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을 위해 수용기의 각별한 사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계량기함 내부를 이불이나 헝겊 등으로 채우고 장시간의 출하거나 한파가 지속될 경우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적은 양의 수도물을 계속 흐르게 하면 동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파 발생 시 담당 공무원 9명으로 수도계량기 동파처리반과 비상급수반을 구성하고, 13개 대행업체로 하여 신속하게 복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조금만 신경 쓰면 간단하게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동파가 발생했다면 언제든 상하수도사업소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파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거나 상수도관에서 누수 등이 발견되는 경우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560-8978, 8981~7)에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